東亞日報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 振替口座京城三五四六番

朝鮮女子여 太陽에面하야立하라 舊殼을脫하고 新生을始하라

吾人의姊妹되는靑年女子에게告하노라 諸君은閨房을出하야太陽에面하야立하라 舊殼의生產的生活을脫하고 眞個生命의有하는自由의人格者가되며 各種意味의奴隸的勞苦를免하고 因習의桎梏을絕하고 新生命의所有者가되야 諸君의材能을各方面에發揮하며 諸君의眞面目을徹底하게露出할지어다 諸君의家庭生活이可하지아니한것은아니나 그러나諸君은天生의奴隸가아니며 衰炎者가아니며 裁縫所가아니며 男子에게對한奉仕者가아니며 閨房에蟄伏하야오즉生產함으로써能事를畢할者가아니로다 靑年女子여 諸君의活動天地가如何하며 따라諸君의生存의價値가如何한가 諸君은스々로그身勢를自省하야볼지어다 夜靜한時에 그過去를省察하야보며 日明한時에 그將來를想覺하야볼지어다 諸君의過去生活에그如何한價値가存在하얏스며 그來頭生活에또한如何한生存의價値가存在할것인가 諸君은일즉히閨門을出할自由가無할뿐아니라 비록閨門을出한다할지라도 諸君은諸君의顔目을露出하고 道路를濶步할權利가無하얏스며 諸君은이와갓치公衆에出하야自己의堂々한權利를主張치못하는것은姑舍하고라도 그家庭에在하야도또한 그男子에게 그父母에게 又는그子女에게自由로自己의意思를發表할權利를有치못하얏스며 더구나自己의權利를行使치못하얏스며 本來그權利의如何한것을不知하얏도다 然則그生活의內容이如何하며 그活動의範圍가如何하얏는가하면 權利가有하다하면그炊爨하는權利이며 裁縫하는權利이며 汲水하야洗濯하는權利이라 噫라諸君의權利가神聖하다하면 諸君의權利도神聖하얏스며 이와갓치强制된勞役卽奴隸의生活도神聖한權利의生活이라하면 天下에는不神聖한것은無하겟스며 就中에도諸君의生活은最高理想的生活이라하겟도다 如此한苦役에拘束된바諸君은 諸君의修養을爲하야 그如何한向上의機會를有하얏는가 發展의機會를有하얏는가 諸君은終日을食事準備와洗濯과裁縫과砧衣에費하고 餘暇가有하면子女에게奉仕하여야하며 男子에게誤樂이되여야할것이라 奚暇에修養할餘地가有하며 向上할餘地가有하리오 吾人은勿論諸君이이와갓치勤勉하고親切하고犧牲的精神이豐富함에感服하노라 此點에在하야所謂賢妻良母主義를提唱하는者와共히歎服하는者로라 그러나 그너무도無自覺하고 그너무도謙遜함을 … 無人格하고 無勇猛하고 無氣力하고 이와갓치無個性함에對하야는 이와갓치하고도能히그生存을繼續하야온것이奇蹟이며 이와갓치하고도 그能히汗水에投하지아니한것이 異常한現象이라

諸君의如此한生活을 이제太陽光線下에立하야眞情으로想覺하야볼지어다 諸君은科學이如何한것을知하얏스며 藝術이如何한것은知하얏스며 政治와經濟가如何한것을知하얏는가 諸君이비록宗敎를信한다하나 그러나果然그眞意를覺하며 果然그人生的「權威」와貪貴에感한바이有한가 男子에게柔順을敎하는것이在來의道德이라 在來의宗敎이라 在來의因習이라 그러나姊妹여 自己의權威를忘却하고 自己의貪貴와向上과發達의全部를忘却한柔順이그무슨道德이며 그무슨價値가有하리오 柔順이不可한것은아니나 그러나人格을承認한後에 換言하면自己의發展을圖한以上의柔順이비로소價値가있는것이로다 柔順 服從 雜役을絕對로强制하는在來의모든道德은모다男子의便宜를爲하야의女子에게對한陰謀이오 迫害이니 此는그道德의本意도아니로다 人性의本然에違反되는如此한모든因習을脫하고 閨房을出하야 太陽下에「自然人」으로卓立할지어다 新時代는諸君의舊殼을打破하라고鐵槌를擧하얏나니 諸君은諸君의本性에自由하라 現在의生活이自然인가合理인가 國家가諸君에게何關이며 社會가諸君에게何關이며 文藝와經濟가諸君에게何關인고 此等은모다男子를爲하야存在한것이오 諸君을爲하야存在하지아니하는도다 그러나諸君은國家生活에對하야果然何等의交涉이無하며 社會와文藝와其他各種文明生活에對하야何等의交涉이無한가 吾人은知하노니 國家가不完全하면諸君의愛子는罪업시戰爭의草露가되며 社會가不完全하면諸君의新夫는罪업시獄에泣하나니 이것이엇지諸君의心情이外部世界와交涉이無하며 國家社會와關係가無하리오 그러나諸君은閨門을出할自由를有치못하며 더욱이國家生活에對하야牝鷄之鳴은大禁物이로다 噫라姊妹여 此가滑稽가아니면 그엇지一大慘虐이아니리오

吾人은諸君에게더욱히切實한問題를提出하고자하노라 諸君의一生運命이何로써支配되며 何로써決定되는가 諸君의來頭를想覺할時에「結婚問題」에想到하야볼지어다 諸君은此에對하야崇高한男子를擇할自由가有하며 一生을托함에滿足한 丈夫를選할만한權利를有하는가 換言하면諸君은諸君의最大運命인此問題를自決하는權利를有하는가 아! 吾人은諸君에게事實을告하리라 諸君의父兄은諸君의配匹을求할識見이無하다하야「男子」를諸君에게强制하고 識見을養成하기爲하야일즉히敎育의機會를許하지아니하얏도다 이와갓치强制된諸君은永々히强制結婚에泣할運命下에在하도다 娶妻에告親이人生의大禮라함과 그壁을穿踰하야相從함이恥辱이라함은그亦不可한것이아니나 一己의子女로하야금强制結婚에一生을泣하게하는것이더不可한것을此際에全般社會는深覺하여야할것이라

然則朝鮮靑年女子의取할方策이如何한가 … 此는諸君의當然한人格으로써權利를要求하며解放을絕唱하라 此는人形이아닌諸君의當然한要求로다 太陽下에出하야 光明을浴하며 蒼天下에充分한空氣를呼吸하야 充實한人生味를發揮할지어다 諸君이完實한後에 第一朝鮮이비로소完實할것이니라

物價騰貴에對한民間의對策을論하노라 (三)

鮮于全 (寄)

二、消費組合 (續)

一、朝鮮의實狀 朝鮮을產業方面으로觀察하면 單純한原料品의產出地오 貿易方面으로觀察하면 多種의必要工業品을他에依賴하는輸入地오 生產技術과生產能力이甚히幼稚하야 製造工業은近代的보다도原始的이오 經濟的活動은生產에短하고 消費經濟에長하야 生產力보다도消費力이多하며 政治的關係로觀察하면 技能과實力이幾倍나優勝한他民族과同一한水平線上과同一한政策下에競爭치아니치못할苦境에在한다 그生活이엇지難하지아니하며 그境遇가엇지安하다하리오 그런데도自存的精神이缺乏하고 自備的觀念이乏少한朝鮮人은 生產보다도消費에全力을加하야 收入은何如間支出에勇敢한習慣이有하지아니한가 大槪浪費를禁하고節約과貯蓄을奬勵하는것은今日과如히生存競爭이激烈한時代에在하야는生存을確保하는唯一한方法이다 朝鮮人은特히此에留意하여야할지며 이와갓흔方法을有機的으로實行코자하야出現한것이貯蓄組合과消費組合이다

二、消費組合의本意 그러나消費組合은生產에對抗하기爲하야生한것이아니며 又는消費品에서生한것도아니다 오즉消費者에게配給함을目的하며 同種量의消費品을廉價로共買코자하야生한것이다 그럼으로消費組合은生產者로부터直接消費者에게配給함을目的하며 生產者와消費者間에介在하야 中間利益을目的하는商賈에對하야는絕對로兩立치못할關係에在한다 換言하면消費組合의目的은所謂商利를根本的으로打破코자하는것이다 近來公德心이薄弱하고 私利心에만浸潤된不正한商賈가消費者에歸할利益을壟斷하는그額은果然莫少하지아니할지니 이케假想的으로一例를擧하야 此를證明하건대

京城府의人口가三十萬人인데그全市民의每月消費하는必要食料品의價格을小賣價로評價하야每人平均十圓이라하면 그一個月間總計는三百萬圓에達할것이다 이제京城市民이全部消費組合又는共同買入의方法을利用하야 各自가食料品에對한支拂額의平均五分을利得한다하면 各人의每月平均利得額은僅히五十錢에不過할것이다 그러나此를全部市民의總利得額으로綜合하야보면 每月十五萬圓에達할것이오每年一百八十萬圓에至할것이다 이勿論「一金一百八十萬圓」이라하는觀念으로觀察하면 … 그러나朝鮮人의 … 로觀察하면價値巨額이라할것이니 此를京城府豫算에比하면 歲入의約二倍에近하고 最近京城府에서計劃한朝鮮人學校增設第四十萬圓에比하면 四倍半에相當한다 그런즉此를敎育費에充當한다하면 京城府에서直轄하는學校數를四倍以上에增加할수잇스며 現在就學兒童數의四倍以上을收容할수잇다 엇지그額이輕少하다하리오 이와갓흔巨額의利益이現在制度下에在하야는모다商賈에게歸하는것이다 그러나 此를消費組合的制度에依하야生產者로부터直接共同買入을한다하면 一層優良한食料品을使用하게될뿐아니라 그와同量同種의食料品을一層廉價로買入할수잇스니 換言하면商賈에게歸할不少한利益은消費者가親히그懷中에收하게될것이다

作家로서의抱負

劇界에對한私步

玄哲

演劇에對한抱負를말슴하라고 하심니까? 大端히難處한일이올시다 그러나이러한말슴을무르신以上에는 비록私見이나마 한마듸말슴을안이할수도업슴니다 우리社會의今日形便과가치 모든藝術이微弱한이자리에서 적어도五大美術을綜合한演劇을 싱각할때마다 스사로그寂然한嘆息을禁키難함니다 그러나이러한嘆息으로만 모든것을이키리겟느냐하면 그러도우리社會에 한갓慰安서린로나 또는敎化機關으로 演劇이라는것이 可히업지못할것인줄생각하는玄哲로써는 크나큼으나 平生을두고 이方面을顧慮히지안을수가업습니다 그러타고 한부로덤벙거려서在來의新派이니舊派이니하는것과가치 沒常識無條理한 …하게 演劇이라는看板만빌녀가지고 觀衆으로하야금 卑劣한情趣를배호게하고 社會로하야금何等의利益만업게할뿐만안이라 도로혀演劇自體의神聖味를毀損케하는그러한行動은取코자하지안이합니다 이것은非但玄哲뿐만안이라 한가지藝術方面으로나아갈야고하는사람으로는 다가치藝術的良心이잇는이는 그러할줄압니다 좀甚한例갓기도하지만은 우리가貧困하여조밥을먹는것이 體面에關係된다고하여 盜賊질을하여서라도이밥을먹는것이올타고하면 아마도그것은 누구던지良心이잇는이는反對할줄압니다 그와가치우리의演劇도 여러가지未備한것이잇서 演劇自體를形成치못할境이면 차라리未備한그點부터 먼저準備하는것이順路인듯합니다 그러한意味下에서 演劇의第一主眼되고또卒地에마련하지못할戱曲即脚本을먼저準備할必要가잇는줄압니다 이脚本을準備하는데는 그順序로

第一은翻譯時期를지나서 그다음에는模作時期에이르러야할것이고 模作時期에서엇던經驗과才量으로創作時期에가야할것인줄밋슴니다 그다음에는우리의形狀에必要하고適切한史劇을創作하여야할줄압니다 그리고第二로演劇에必要한技藝員을養成하여야할줄압니다 그다음으로附帶되는藝術即舞臺裝置나背景畵나光線가튼것은性質上臨時々々하여서라도製作할수가잇고 또그方面의專門家—畵家、電氣技師、建築家—가잇스니 비록劇에對한素養이업더라도— 그것은適當한舞臺監督下에서相議하야만드면 못될것이안일줄압니다 或엇던이는우리나라에는劇場이업다고嘆息을할는지도 모름니다만은 勿論그것도잇섯스면 그우에더조흔일은업겟지만은 반드시그것이업다고落膽할것은안인줄압니다 그것은演劇에野外劇도잇고 庭園劇도잇스며 森林劇도잇고 또試演도잇스니 그外에 … 지嘆息할것이야무엇잇슴니까? 가까운實例는近者日本서 坪內博士의指揮下에서 熱海箱根에서와 戶山學校々庭에서 … 「公共劇」가튼것은 우리위게조흔敎示인줄암니다 이여러가지의主見下에 玄哲의個人의생각으로는 今年부터는 혼자로는脚本의作에着手를하여보고 또남과는 時間과能力과場所가許諾만되면 無條件으로엇더한團體던지 엇던한目的이안이고 다만好劇同志者만모이면 演劇講習所가튼것도하여볼가싱각합니다 그것은오는일이요 또사람의일이라 마음대로되지는안을것이니 아직은斷言할수는업슴니다 다만이러한두어가지말슴이 玄哲個人의抱負라고할는지요? ……만은 한가지劇을愛護하시는여러분들도 다만그虛名만取할것이아니라 좀더根據잇고內容잇는方法을取하는것이 未來의우리民族에게 무슨도음이잇슬가합니다

『小』의暗影 (六)

瞬星生

哲秀는 뒤를向하고 허리를굽혀 燈盞의심지를 나추고 잇슬새 누가房안으로 드러오는 인기척이 나는故로 必然 靜子가茶를가저오는줄로미리짐작하고

「웨겨 그러케맙니가져오오」

하고 뒤를도라다보즉 안잠자기할멈어미가 火爐를 가지고드러와 쎽々한몸을 주체를못하면서

「인제 드러오셧세요?」하는지라 哲秀는 입에내여 말을하지아니하나『나는누구라고, 별일어먹을것!』하고 다시이편으로 속 도라안는다 이이번이 사람업는사이의監視兵이다 아마 白銅한푼쯤 바닷겟지』하고 속으로 그러케싱각하나부러 모르는체하고잇스매 稿童어미는엉덩이가 근지러운듯이 火爐를 노차마자 房門밧그로 나아가더니 저편을向하고 더러운혀바닥을 릴듯내밀제 靜子가 눈압헤 옷둑섯는지라『얼골이싯벌개저서 슬々逃亡을친다.

靜子는 愁心을품은 눈으로한참 그뒤모양을 보다가 아모말도 아니하고 房안으로 드러와

「자, 普通茶가 다업서저서 보리茶를가저왓는데관찬나요?」

「보리茶? 조ㅡ치!」하고靜子의對함에는 언케던지 늘言容이快活하다.

靜子는 소리업시가마니 안저서김이 무럭々々나는 茶를따라 哲秀를주매 哲秀는 얼른茶盞을드러連겁허 서목음을 마시더니

「아야, 조타! 인케야 겨우사리낫군」하고또다시 두목음가량맛보고「아ㅡ고소하다!」하고茶盞을코에다버여 냄새를맛하가면서

「엇더케면 이러케잘볶갓소」

「비, 日前에복가두엇든것이야요. 너무타서 쓰지안어요?」

「아니 쓴게무어야! 보리茶란 복기를 잘볶가야해.」하고 또반목음더니,

「암만해도 靜子는 달러!」

「비?」하고 그말의쯧을 쇄닷지못하는듯하다.

「암만해도 달러!」하고 또다시혼자 感心하야「茶한盞을 주드러도 이러케親切하지우님이언케이러케 한번해줄되겟소?」

「이아 그ㅡ」하고 못외러운듯이 상긋웃는다.

「참말이야. 그런가닭으로 나는늘이러케 생각하오 靜子에게는未安하지만은 靜子의不幸이 나에게는 幸福이되엿다고.」

이러케말하는 얼골을 靜子가 이상스럽게 처다볼뻐에 두사람의눈이 석마주치매 서로슬뇌눈을돌닌다.

哲秀는 싱각이깁흔눈으로가마니남포불의미리보다가

「이상한 말을하는것갓소만은 靜子가 싀집에서도라온後, 每日이러케서시중을 드려주는 까닭으로 나는비로소家庭의 眞味라는것을알앗소……이집에와서몃해가되지만은……」하고, 말을흔터니「이런待接을바다본적이 업소……」하고 종용히恨歎을빼그의목소리는 얼마간떨려나온다.

靜子는 元來女子라, 별안간에는 눈물이 그렁々々하야 고개를숙인채얼골을들지못한다.

두사람이 서로黙然히 마조안진채 한참동안 말이업다 잠든귀뚜람이(蟋蟀)소리는더욱사람으로하야금悲感을돗기게한다.

한참잇다가哲秀는싱각을돌려

「아, 참靜子한테아즉도 여러가지이야기가잇는데, 자, 좀더이리갓갑게오오.」

東亞短評

◇華府會議는今後三週間이면閉會할事를米國務卿이發表하얏다云云 所期目的의遂行에果然遺憾이無할는지

◇過去七週間이短時日은아니나 其成果는豫期에比하야遠히못하니 果無한가 米國에吾欲先問

◇太平洋에平和를求하고 極東에平和를求코저 四國協約을結하고 更히九國協定의成立을求

◇九國協定의內容은詳細히知得키難하나 中國에對하야列强의侵略防止가目的임은無論

◇原則이니協定이니 中國에對하야本來榮光은아니나 現今情勢로는此의利用이最上策乎

◇今次決議된原則의適用될時機는 列國의誠意보다中國의奮發如何에遲速이係함은明白

◇故로中國은華府會議의失敗만憤怨치말고 機會마다利用하야實力充實에努力함이第一

◇智多代表의發表는日佛密約의締明에泊沒하는中에 日本對세묘노푸의密約이又復暴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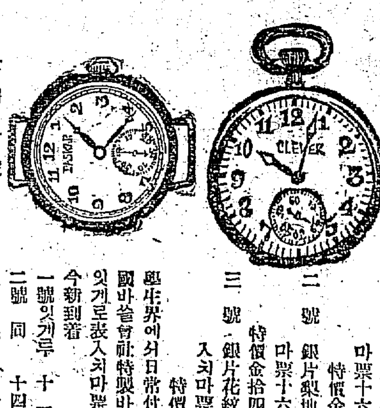
◇前者의事實與否는判斷이困難하나 後者는果然事實인가 何如間日本全權의煩悶은不少

◇北京의梁內閣은第一着으로 七千萬의借款을計劃코 中國政界에는善後借款者가第一英雄

△보십시오▽

時間正確機械堅牢하기로僉位君子의게多大한贊成을蒙하읍든클레바會社特製한懷中時計클레바號各種이新荷着

左各號를合하야六百個로限하고 元價로大放賣하오니勿失此期하시옵



조흔極美한

一號 銀片七子寶石入 마票十六形 特價金拾四圓也

二號 銀片梨地寶石入 마票十六形 特價金拾四圓五十錢

三號 銀片花紋彫刻寶石入 마票 特價金拾五圓

클레바號

此品外에各種時計를歲暮에二個月間正價의二割引함

今新到着 學生界에서日常付託하든米國바솔會社特製바쓰갈腕時計가잇게로表入치마票腕時計方

一號 十五圓也 二號 十四圓五十錢 三號 銀 十六圓八十錢

京城鍾路二丁目二十五番地 明眼堂支店時計部 主任 沈昌運 告白

金銀美術品製造販賣商 三光商會 地方引換代金 主 金同圭 京城鍾路一丁目四九番地

花柳界의仙藥 滋陽興奮 腎氣强壯 專門劑 春藥

濟世藥房本舖 京城府竹添町一丁目 振替京城六二一四番

拜啓 本店에서特히以下各種을 廉價로販賣하오니 陸續注文하심을 敬望

學生帽 一個 自四十至三十五錢

鳥打帽 一個 自六十至五十錢

便利鞋 一足 自十一至十二圓

但 地方注文代金引換으로酬應

新義州老松町六六番地 韓永商店

西洋紫福壽 短靴 編上靴 特別製品

京城南大門通四丁目 世豊洋靴店 主 金顯珪

粗惡한商品은信誼업는朋友와갓다

紳士用 깃도短靴 編上靴 복수短靴 編上靴 特別製品

運動靴 蹴球編上靴 自拾壹至拾參圓 野球短靴 自八圓至八圓五拾錢

學生用 編上靴 복수短靴 特別製品

善良한商品은信誼잇는朋友와갓다

本劑의効用

結核性疾患에卓効잇는— 眞正한補血强壯增進劑 ラヂヤコールブルトーゼ

實驗推奬

說明書實驗錄進呈

種類及賣價

元賣發 大阪藤澤友吉商店

一月八日 新寫眞全部交換 每週二回交換提供

米國유니버-살會社 大活劇 第四回 十三의秘密 全十五編 卅一卷之內 四卷上映

文藝民衆藝術諷刺劇 懊惱의胡蝶 全五卷

伊太利암부로지오會社作 泰西正劇 嗚呼一刹那 全四卷

解說部員 金悳經 金永煥 崔鍾大 崔炳龍 徐相昊

京城府授恩洞 團成社

金銀 地金商 德力本店出張所 京城明治町

獨式製繩機 十年保險附

金貳拾參圓

六○六號代用內服藥 梅毒新藥 ヨートカリ丸

販賣所 京城鍾路二丁目 博愛堂

自習完璧 支那語集成 語學家宋憲奭先生著

獨習容易 內容忠實

發賣元 林家出版部

京城發賣所 德興書林 新舊書林 漢城書館

삼용보익수

男女를勿論하고補陰補陽에特効함

一個月分 四圓 二個月分 七圓五十錢 三個月分 拾壹圓 郵料每月分 七拾錢

此藥을 비換郵便으로注文하시라 번郵料七拾錢을加送하시오 不然이면酬應치아니함

京城鍾路一丁目 (電話二○一一) 模範賣藥商會

海軍制限實施期

海軍制限條約이 有効하게 된 後에는 十六個月內에 各造船所에 對한 戰艦의 建造를 不可能하게 하고 老艦은 補充前四個月以內에 除艦하고 戰鬪에 堪치 못할 者는 六個月內에 廢艦으로 하야 十八個月後에 啟을 延期하기로 하얏더라(華盛頓四日發)

廢艦處分案審議

華盛頓會議海軍專門委員會에서 廢艦問題를 審議하야 其期間을 各各 決定하얏다 하는데 아직 當局에서는 確實한 報道가 無하나 各國의 自由로 하야 此를 商船 其他로 運用함은 關係가 無하나 但 戰爭에 使用키 不能하도록 하리라고 思惟되며 因하야 三國海軍의 建造中인 者 廢棄될 者는 六十六隻 此의 總噸數 百八十七萬八千四百八十一噸이라더라(東京電)

除籍과 補充의 協調

華府會議에 軍縮에 伴하는 軍艦의 除籍과 補充에 關한 協調는 圓滿히 成立되얏더라(華盛頓電)

各國特殊艦保有

各國은 共히 其特定의 海軍用을 因하야 基本艦三隻을 保有함을 許하얏더라 然이나 此는 武裝을 一切 解除치 아니치 못할지라더라(華盛頓四日發)

商船襲擊을 禁止

華府會議海軍委員會에서는 潛水艦의 商船襲擊禁止에 關한 「루ー트」氏案을 決議하얏더라(華盛頓電)

「루ー트」案實施에 同意

海軍委員會는 潛水艦에 關하야 「루ー트」氏가 提出한 二提案의 規定을 即時實施하는 決議案에 同意하얏더라(華盛頓五日發)

日全權承認聲明

─加藤全權은 聲明하야 日本은 原則으로 하야 潛水艦問題에 關한 「루ー트」決議案을 承認한다 云하고 又日本은 想必五日에 開會될 會議에서 各種問題를 討議할 準備가 有하다 云하얏더라(華盛頓四日發)

佛國亦承認聲明

─軍艦條約及代表에 關한 規定이 成立되야 佛國은 潛水艦戰取締에 關한 「루ー트」決議案을 原則으로 承認하얏더라(華盛頓四日發)

本土除外案과 英國

英國代表는 公表하야 太平洋條約에 日本本土를 包치 아니하얏다는 日本의 解釋에 對하야 英國은 反對치 아니한다 云하더라(華盛頓三日發)

中國法權調查 三月北京에 集合着手

華盛頓會議極東委員會에서 中國의 治外法權撤廢가 決議된 結果 此의 實行方法을 研究키 爲하야 實情調查委員會를 組織하야 三個月以內에 調查에 着手하기로 決定하얏슴으로 各國調查委員은 三月中北京에 集合하야 本部를 北京에 置하고 各地方을 巡廻調查하리라더라(華盛頓電)

外軍撤退可決

極東委員會는 中國에 駐屯하는 外國軍隊를 結局撤退함을 規定한 決議案을 可決하얏더라(華盛頓五日發)

海關稅增加承認

五個國委員은 中國海關稅를 實收五分으로 增加하는 分科委員會의 決議案을 承認하얏더라(華盛頓五日發)

山東北京交涉說과 南中國政府의 態度

續報─中國關稅引上에 關하야는 華盛頓會議分科會에서 關稅委員會는 四個月以內에 物價의 評定을 行하야 評定이 成立하면 即時關稅引上을 實行하기로 決하얏는데 再改訂의 時期, 附加稅와 修品增賦率等은 昨電과 如히 決하얏더라(上海五日發)

廣東政府代表者馬素氏의 發表에 依한즉 南方政府外相伍廷芳氏로부터 山東問題에 就하야는 北京政府와 日本間에 價值가 無한 協定이 北京에서 成立한다는 旨의 電報를 接하얏다 云하얏더라(紐育四日發)

山東交涉又停滯 日中確執依然

四日의 會議에서 日中兩國委員은 山東鐵道代償金支拂에 對한 對案에 就하야 直接討議하얏는데 仄聞한바에 依한즉 日本委員은 依然히 日本의 對中借款의 形式으로 支拂함을 要求하얏스나 中國委員은 此를 拒絕하고 中國은 依然히 代償金을 十二個年의 年賦로 하야 現金으로 支拂하는 提案을 固執한다 聲明하야 形勢는 遂히 停滯되야 會商은 休會되야 兩國委員은 共히 滿足한 解決을 得한다 함에 就하야는 言明을 避하더라 王寵惠氏는 曰 中國은 日本의 對中借款案의 審議를 公式으로 拒絕하얏도다 中國은 日本이 中國의 對案을 受諾하거나 又는 斷然拒絕할것을 豫期한다 하얏더라(華盛頓五日發)

佛首相의 英國批難 財政協定에 佛白除外를 憤慨

「쓰리안」氏는 「카ー느」에서 白耳義의 一新聞記者와 會見하고 英國의 八月十三日의 財政協定에 關하야 佛、白兩國을 除外함을 批難하고 但若白耳義가 獨逸의 賠償支拂延期問題에 關하야 英國伊太利兩國에 反對하고 佛國側에 贊成할時는 佛國은 賠償金에 關하야 白耳義에 優先權을 與할事를 約하얏다 云하더라(「브랏셀」五日發)

露國土保全協商

露國의 國土保全에 關한 「휴ー스」案은 列强이 一層協調하자는 意見으로 各國全權이 此에 關하야 尙히 審議中이라더라(倫敦電)

智多又密約發表 日軍과「세」軍間의 締結한者

華盛頓에 在한 智多政府代表는 在西伯利亞日本軍과 「세미노프」軍 士官間에 締結하얏다 稱하는 條約의 謄本을 公表하얏는바 右條約은 「세」軍이 極東共和國을 攻擊함에 對하야 武器及軍資金의 提供을 約한 者인데 日本은 其代價로 西伯利亞에 完全한 政府가 樹立되는 時는 西伯利亞의 漁業森林採伐及工業地의 優先權獲得을 規定하얏다 云하며 又極東共和國代表는 此는 即日本이 事實上自國의 管理下에 殷치게 하고자 하는 證據이라 聲明하얏더라(華盛頓四日發)

華議成績讚揚 英國全權中最有力者

英國全權中 最有力者는 華盛頓會議의 事業을 論하야 幾多의 好結果를 列擧하야 曰

中國은 華盛頓會議에서 多大한 利益을 獲得하얏도다 列强은 中國이 最近의 革命以來共和國建設의 結果를 得코자 하는 途程에 在하야 蹉跌치 아니하게 하기 爲하야 一致하야 保護의 任務를 取하는 一途에 就함에 妥協하얏도다 合衆國이 今日의 强大한 國家를 建設하기까지 七十五年의 歲月을 閱하얏스나 中華民國은 成立以來僅히 十個年에 不過하얏도다 八大國이 中國을 援助하기 爲하야 結한 道義的 政策은 世界史上에 曾히 一國도 受한 事가 無한 者이라 云云(華盛頓五日發)

「데、밸레라」與黨辭職乎 英愛協定批准問題紛糾

「신펜」黨議會는 英愛條約에 關한 討議를 再開하얏는데 「데·밸레라」一派의 多數領袖는 批准에 先하야 辭職할터이라 豫言하고 又票決하기 前에 演說을 希望하는 者가 五十人以上이라더라(더불린三日發)

條約修正提議

─愛蘭大統領「데·밸레라」氏는 英愛講和條約에 就하야 修正提議를 提出하야 不得已解決하게 하도록 試코자 한다 思하더라(더불린四日發)

「쏌베이」에 領袖會議 「깐듸」氏도 出席宣言

「깐듸」氏는 一月十四日 「관지프、마리비아」及其無所屬派領袖에 依하야 「쏌베이」에 召集되는 會議에 出席할 旨를 陳하얏는데 同會議에는 各黨員이 全部列席할 터이라더라(「쏌베이」五日發)

北濠와 亞細亞移民

南濠洲首相「비ー엘」氏는 曰 「北部地方의 開發은 完全한 市民權을 有한 優秀한 亞細亞人의 植民에 依하야 行할것이라」 云하얏더라(「신드니」五日發)

「칸」會議의 內容如何

最高會議委員會는 臨時協議會를 開催하고 佛國首相「뿌리안」氏와 英國首相「로이드죠지」氏間에 協議中인데 佛國은 英佛同盟을 提議하야 今回의 會議는 賠償과 荒廢地域의 改造에 止할 事를 求하는 者이라 察하더라 然이나 英國은 露獨兩國에 對한 經濟的援助를 銓議코자 하는 意向이라 信하더라(「칸」四日發)

過軍對芬蘭激戰

露國過激派軍은 「코레리야」에 在한 芬蘭軍에 對하야 攻勢를 取하야 激戰中이더라(헬싱폴스三日發)

智多政府의 危機 五大臣辭表提出 鐵道從業員怠業

智多政府의 「에스엘」「에스데ー」에 屬한 五大臣이 辭表를 提出하얏는데 理由는 表面 「니키포로프」와 「마드에ー프」等이 議會에서 無責任한 答辯을 行한 事를 攻擊하야 共產黨과 連帶責任의 衝에 立키 不能하다 云함이나 實際는 一般의 形勢上 智多政府의 前途를 豫測하고 所謂大勢에 順應함이라 思하며 從하야 「멜크로프」政府와의 妥協도 或은 實現되지 못하리라고 一般은 豫想하더라(海參威電)

鐵道員政府反對

─智多에서는 最近公然反政府論을 與하는 者가 多한데 特히 鐵道從業員은 給料의 不渡로 怠業을 行하야 武器를 使用하는 者까지 有하야 反政府氣分을 示한 故로 重大視되더라(海參威電)

白衛軍勢力增大

過般來「빌친스크」를 中心으로 하야 活動을 繼續한 反政府軍의 勢力은 逐次增大하는 듯한데 最近又「빌친 스커지오ー드」의 東方으로부터 有力한 白衛軍이 行動을 開始하얏다 云하는바 此白軍은 元來國境附近에서 待機의 姿勢에 在하야 「빌친스크」街道沿線一帶에 相當한 勢力을 有하는 中各地農民自衛團은 其行動을 援助하야 武器까지 提供하더라(哈爾賓電)

日本人通過禁止 白軍과 關係가 有하다는 理由

武市政權은 突然日本人에 限하야 黑河通行을 禁하얏는데 右는 最近白軍活躍에는 日本軍이 關係한다는 理由에 因함이라더라(哈爾賓電)

吳、梁內閣不承認

吳佩孚氏는 正式으로 梁內閣不承認을 聲明한지라 梁氏는 緊急閣議를 開하야 對應策을 審議하고 即히 曹錕氏에게 懇和의 勞를 依賴하얏더라(北京六日發)

南北平和運動始 梁總理代表南方과 折衝

北京政府國務總理梁士詒氏의 代表는 昨今頻々히 香港廣東間을 往復하면서 陳炯明派에 對하야 南北和平運動을 開始中인데 有代表者側의 傳하는바에 依한즉 陳炯明氏는 若北方에서 孫文氏를 中華民國大統領으로 承認할 時는 南北妥協에 應하야도 可하다는 意見을 漏洩하얏다더라(上海四日發)

公債發行贊成

北京來電에 依한즉 梁總理는 閣議를 召集하야 特別會計를 始하야 財政의 危篤에 應하고자 九千萬元의 公債를 發行할 事를 圖하야 大體로 贊成을 得하얏는데 閣議는 未決定이나 徐總統과 相議中인바 閣員의 多數는 贊同하는 中이더라(上海六日發)

隈侯病勢危篤

六日午前六時發表에 依한즉 大隈侯의 容態는 脈搏八十六體溫三十七呼吸二十인데 昨夜十一時에 滋養灌腸을 行하얏스나 吸收가 不良하야 危險狀態가 依然繼續하는 中이더라(東京電)

山公病勢依然

山縣公의 病氣에 就하야 某氏는 語하되 「老公의 容態는 一進一退하야 依然不變하야 熱이 下치 아니하는 故로 設使食慾이 進한다 하야도 今日小康이라 云함에 不過하다」 하더라(小田原電)

駐日公使更迭 後任은 汪大燮氏說

駐日中國公使가 辭職하야 後任으로 汪大燮氏가 赴任하리라 察하더라(上海五日發)

綿絲輸出激減

紡績聯合會의 調查 十二月下旬綿絲輸出高는 七百八十九梱인데 前旬에 比하야 約二十梱半 前月同旬에 比하야 百十八梱增加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千百六十一梱半의 激減인데 仕向地方은 左와 如하더라

上海四百十梱▲青島五百五十八梱▲牛莊二十五梱▲大連三百六梱▲漢口百二梱半▲安東縣三十六梱其他六百九十四梱▲香港一千二百廿三梱半▲馬尼刺廿六梱▲印度一千七百八十二梱半▲浦汐一梱半▲其他各地二百廿八梱▲計七千八百九梱

又大正十年의 總輸出高二萬八千七百八梱인데 前年에 比하야 三萬三千百二十四梱半의 增加를

朝鮮豫算省議通過 補給金僅히 九十萬圓增加

各地豫算中查定이 最至難하다는 朝鮮總督府提出의 十一年度總豫算案은 既報와 如히 所謂總督府의 主張으로 文化併行主義에 依하야 反히 困態에 在하야 改正豫算에 外하지 又復削減함에 至하얏더라 水野政務總監과 如한 此로 因하야 屢次頻々히 大藏省及拓殖局에 對하야 哀願的 打電을 行하는 等 深히 苦心한바인데 四日主計局의 查定이 終了되야 五日省議에 附하야 六日에 確定豫算이 될터인바 此에 依한즉 巨大한 補給金은 容치 아니하고 僅히 農商務省의 製鐵下附金 三十萬圓 一般會計의 六十萬圓을 增加함에 不過함에 因하야 豫히 計劃한 清津元山間의 航路補助와 外航補助의 件及勞農共濟組合創立의 件等은 勿論 既設事業에 至하기까지 極度의 削減을 加한 者인듯하더라 此에 就하야 政府當局者인 某氏는 曰 朝鮮豫算의 超大함은 今日까지 種々 評論이 有하던바 本年과 如함은 中央政府는 勿論 各地가 共히 緊縮方針을 取하야 財政縮少의 實을 擧코자 하야 朝鮮의 文化의 發達에 對하야 不可避할 者에 限하야 計上함에 反하야 豫算編成에 當하얏슴으로 緊急過大한 經費를 要求하야 產業、敎育、土木을 勿論하고 擧皆 同一企劃으로 放奔한 興業을 圖하야 世間에 行政整理의 聲이 高한 時임을 不拘하고 大히 人員을 增加코자 하는 意向이 有함은 時代의 要求에 矛盾되는 錯誤에 不外하도다 殊히 其他 施設에 比較的 中央의 方針을 守하야 通過가 容易함에 比하야 朝鮮側의 通過가 至難함을 見하면 其一端을 可知이라 云々(東京電)

代金延納規則改正發布

物品賣却代金延納規則中改正의 件은 九日付總督府令으로 左와 如히 發布한다더라

第一條 朝鮮總督府及其所屬官署에서 物件賣拂代金의 延納을 許可하는 境遇及其延納期間은 左의 各號에 依함

一、度量衡、敎科書、鹽及試驗을 爲하야 釀造하는 酒類를 賣拂하는 境遇에 在하야는 一口賣却代金이 百圓以上이 될 時는 六十日以內、百圓以上三百圓未滿이 될 時는 三月以內로 此를 許可함

二、煙草、煙炭、森林產物、木材及製品을 賣却하는 境遇에 在하야는 一口賣却代金一千圓以上이 될 時는 一年以內、五百圓以上一千圓未滿이 될 時는 六月以內로 此를 許可함

三、煙草를 賣却할 境遇에는 二口의 賣却代金輸出에 供하는 煙草는

第二條 延納의 許可를 受하는 者에게는 擔保物로 延納할 賣却代金과 同額以上의 國債證券을 提供케 하며 但分割引渡를 約한 物件의 賣却에 對하야는 其引渡物件의 代金과 同額以上을 引渡하는 때마다 提供케 함을 得함

第三條 代金延納을 許可한 物件의 引渡는 其擔保物提供後에 此를 行함

第四條 當時第一條各號에 揭한 物件의 賣拂을 受하는 者가 代金納付의 擔保物의 價格에 達하기까지 延納을 許可함을 得함

第五條 擔保物인 國債證券은 當該官署에 此를 提供함이 可하며 提供者는 此를 供託하고 其供託證을 提出할 事를 得함

第六條 木材及製品의 賣拂을 受하는 公共團體에 對하야는 擔保物의 提供을 免除함이 有함

附 則

明治四十四年朝鮮總督府令百四十七號物品賣却代金延期規則은 此를 廢止함

京城市街地價 漸次昂騰

京城市內不動產價格은 昨年財界의 最高調時代에 空前의 高價를 現出하얏는바 財界反動과 共히 漸次低落하야 遂히 昨年四月에 至하야 一時最高價時代에 比하야 一般히 約半價에 下落하얏는데 最近金融이 緩漫케 되고 金利가 低落하는 故로 再次漸騰의 氣勢를 示하야 今에 昨年四月頃低價時代에 比하야 大概一割五分乃至二割의 昂騰을 見함에 至하얏더라 勿論現在의 好況은 一時的中間景氣에 不過하거니와 今後財界에 如何한 變動이 發生할지 計키 難함으로 不動產價格과 如함도 今後의 騰落을 豫測키 難하다더라

下半銀行業績 殖銀理事 中村光吉氏談

昨年下半期의 銀行業績은 一般이 良好하야 上半期에 比하야 相當한 餘裕金을 生하얏고 資金은 地方에 分散되는 結果로 遂히 八月二十五日에 大恐慌을 生하야 金融緊縮을 見함에 至하얏는바 爾來金融은 緩和치 아니하고 强調로 經過하얏스며 次에 朝鮮米는 出廻가 例年보다 後하얏스나 十一月에 至하야 一時에 出廻하야 穀物資金의 需要가 亦是旺盛하얏는데 …의 日步가 低하얏슴으로 長期의 放資를 相當한 額에 達하고 國債拂込의 …

客月鮮鐵業績

朝鮮鐵道客月中의 業績은 歲末輸送繁忙期에 當하야 一般荷動이 良好하고 特히 穀類木材의 出荷가 旺盛하얏스며 旅客의 往來가 氣候의 溫暖으로 例年에 比하야 大概多數를 算하야 結局十年中의 活躍을 見함을 得하얏는데 統計는 左와 如하더라

種別	統計額	前年同期比較
乘車人員	一九〇、四三八人	三三、三六九增
貨物噸數	三六八、七四三噸	八七、一六九增
客車收入	一、六九八、四四四圓	一七、八六五增
貨車收入	一、四九九、七〇二圓	一三三、三五四增
一日一哩平均收入	四三、八〇錢	八、三六增

督促手數料改正乎

京城府에서는 從來의 徵稅成績에 鑑하야 本年度부터 諸稅의 督促手數料金을 改正하야 納稅額에 應하야 增減의 方法을 講할 事로 內定하고 目下其比率에 就하야 具體案을 作製키 爲하야 調查研究中이라더라

殖銀定期總會

朝鮮殖產銀行에서는 二月二十日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第七回定期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利益分配案等案件을 附議한다는데 配當은 前期와 如하다더라

市場會社計畫進捗

南大門市場은 十月初旬第四次의 認可以來로 復舊함에 未至하얏는 故로 該市場의 顧客으로 한 委託商人 諸氏의 有志는 委託販賣市場經營을 目的으로 한 會社設立의 議가 有함은 既報와 如하거니와 發起人은 服部豐吉氏外 數氏 三十萬圓의 資本金으로 現在의 番地 千六百五坪中 鐘路先千坪에 五坪二百戶半과 市場을 建設하고 防火設備를 完全히 하야 此市場商人에 貸與할 計劃으로 共히 委託販賣業에 全力하기로 하야 現在市場權은 大正十六年度까지 朝鮮農業會社 宋秉畯氏에게 屬하얏슴으로 氏를 顧問으로 하야 繼承의 認諾을 得하야 着々計劃이 進捗中인데 近々俱體的 成案을 見하리라더라

橫說竪說

▲一百二十五歲를 自認하던 大隈重信老도 宿痾가 重態에 陷하얏는데 志氣는 尙今旺盛하나 肉體는 八十五年을 經하얏슴으로 回復이 困難한듯하야 一時는 死去說까지 傳하얏다 ▲又元老의 一人으로 軍閥의 巨頭官僚의 首魁인 山縣有朋老도 老病이 漸加하야 安心치 못할 狀態에 在하다 歲月이 速하도다 明治時代의 巨物로 尙今健在한 者果然幾人이나 잇는가 ▲純全히 明治時代의 遺物만 모힌 樞密院에서는 朝鮮敎育令에 對하야 如前히 잔소리가 만타는데 議論의 要點이 一件도 該改正案의 精神骨子에 接觸함이 아니오 形式枝葉에 關한 것이라 함은 果然 明治式이다 ▲精神骨子로는 朝鮮民衆의 希望과 要求에 相反되고 形式枝葉으로는 樞密院의 老人에게까지 非難을 受하는 朝鮮敎育令이라는 것도 朝鮮總督府에서는 凡人의 到底히 企及치 못할 名案傑作이라 한다던가 ▲何如間 政務總監水野君이 急遽渡東하야 波瀾曲折을 거쳐서라도 作을 要한 高級頭腦所有者의 腦裡에서 名案傑作이 新學期前에 發布될 것이나 發布는 된다 하여도 其實行如何이야 말로 朝鮮人의게는 大問題이다

商況

(一月六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一三〇、四四六、[illegible]
正貨準備	四八、一八〇、[illegible]
補助準備	八二、二六四、六八八

◎日銀銀行券(一月四日)

發行高	一、四四五、四六三
正貨準備	一、四四五、四六三
發行餘力	一三〇、〇〇〇
貸出高	一、一四五、六九一

(以上千圓單位)

日本金利及市況

(一月六日現在)(一錢單位)

	東京	大阪
金利		
晝 普通割引步合	二、三〇	二、四〇
翌日物	一、五〇	—
無條件	二、〇〇	二、三〇
六十日	二、三〇	二、三〇

京城手形交換 廿九日

收數	五、〇三七
金額	三、一六九、五八〇

外國經濟電報

(一月六日發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市場의 銀塊時勢는 三十四片八分之七으로 前電보다 八分之三高하야 報하고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時勢電報未着이오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市場의 棉花時勢는 前電보다 三十錢下하게 報하다

綿絲布高騰

大阪三品의 期限과 現物의 海外輸出增加로 因하야 人氣는 益々良好한 中京城에 鮮人側의 新正月需要에 接하야 需要漸次增加함으로 市勢는 追日高騰하야 七日時勢는 如左하더라

三ㅅ	三〇、〇〇	九冊	三〇、〇〇
金剛	一四〇、〇〇	金剛山	一三〇、〇〇
双騎	一四〇、〇〇	飛	一三二、〇〇
世樂島	三三、五〇	扇面	一三九、〇〇

釜山正米新甫

正米의 新年初氣配는 一般强氣로 八十錢高騰하야 三等穀良三十二圓十錢이오 大豆도 好勢로 四圓五十錢에 成立되얏다더라(七日釜山電報)

昨日은 軟弱하고 實取株는 三十八圓五十錢에 成立이오 大新株는 二十六圓六十錢에서 三十三圓으로 騰貴하야스며 信取는 八十五圓으로 高騰하야 緊張하고 放手치 안이하며 新株는 一時勢이 오르는 三十錢式 高騰하얏더라

京株賣買價 (七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實銀	[illegible]			
商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漢銀	[illegible]			

大阪三品 七日前場

限月	寄付	大引
一月	二五八、〇〇	二五九、八〇
二月	二五四、二〇	二五五、一〇
三月	二五一、〇〇	二五一、六〇
四月	二四九、九〇	二四九、八〇
五月	二四九、〇〇	二四九、九〇
六月	二四九、〇〇	二四九、九〇

大阪株式 七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一七〇、〇〇	一七〇、〇〇
同新	一三三、七〇	一三三、一〇
鐘紡	一四〇、一〇	一四〇、一〇
同新	一三五、〇〇	一三五、七〇
商船	九、四〇	—
同新	一四、九〇	一三五、一〇
郵船	四六、七〇	—
東紡	—	一四〇、〇〇
日糖	—	—
上取	—	—

京株賣買高

六日의 京株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一千七百枚
乙部 七百九十枚
短期 二千五百枚

株式市場 人氣株一齊活氣呈

京取株는 年末年初場外賣買는 百四五圓이던바 初立會에 意外의 賣買로 百二圓臺를 上下하더니 六日에는 百三十四圓으로 暴騰함에 本場 大阪株式界에 活氣를 生하야 大新에서도 諸株에 買氣强硬하야 賣方보다 買方이 有勢하게 立會하니 京取株는 今週百六圓八十錢에 付하고 取株는 七圓二十錢外지 高하다가 九十圓에 오리 利喰賣物로 止際에는 五圓六十錢에 止하고 來週는 一躍百七圓五十錢에 付하야 付價를 高價로 六圓三十錢에 止하고 短期는 六圓十錢에 付하야 五十錢에서 上下하다가 五圓에 止한바 强材料의 高騰이 안임으로

京城穀物延 (六日)

現物		三二、〇〇
一月中	三二、[illegible]	一月末 三二、[illegible]
二月中	三二、[illegible]	二月末 三二、[illegible]
賣買成立高		四、一〇〇石
大豆賣買時勢		一四、八〇

商況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昨後場은 大阪步調抑硬함도 不拘하고 當地軟求이 勝하되 二十九圓九十五錢으로 始하여 七十七錢外지 下하고 …

이오 先限은 大阪初付二十八丁激落되니 始價二十九圓四十錢을 高價로 二十九錢外지 低價有하고 三十錢 … 高人七圓六十錢임을 開한 硬市 … 實氣大振하니 … 配相高하더니 昨 …

▲第三節 當은 九圓四十五錢에 始하야 一口有望은 中限은 九十錢에 始하야 一錢을 高하얏스나 軟弱의 防戰 十錢으로 止하다 五錢을 高한 … 九十二錢으로 止 … 先은 三十八錢外 低價有하고 四 … ▲第六節 當은 亦不成에 中은 八 …

	初付	止價	高價
	三十一圓三十九錢	三十一圓五十一錢	三十一圓五十五錢

公定價格	一節	二節	三節
	三十一圓四十一錢	三十一圓三十一錢	三七、五九

當限	帳入價格
六節	三十一圓四十五錢 / 二十九圓四十五錢

洋服實習生募集
一、定員은 男女並二十人
一、場所 桂峴驛前龍岡町八番地第三戶

職業
京城 … 豐國總本店

海州南本町 商啓明社 電話六九番 振替京城一〇二七六番

本店이 開業한 以來 … 多大한 … 여러분에게 … (五房在家)

五房在家 朴元植 京城鍾路町一丁目九十四番地 振替六四五〇番

병으로피로히지내는 여러분에게

轉精療京城分院長 洪在珪 京城府笠井町拾壹番地
轉精療平壤分院長 吳基周 平壤府鷄里拾番地
轉精療大邱分院長 金炯璨 大邱府上町拾壹番地

專門劑 勇力丸

淋疾丸 特效

四象醫院 京城府昭格洞十番地

天恩堂大藥房 京城鐘路二丁目 振替二七九番 電話一五四番

株式拂込公告 京城隆興株式會社

今日天候는快晴에各地氣配는다 弱한便으로報하얏더라 다强한개報하얏슴世아니라早聞 川大阪激騰을傳하니場面은硬化 ◆第一節 當은不成에小은마後 一先限은同一한二十九圓七十錢 節五十九錢을傳하니 … 大阪二節에서彼此相交하다가二十八 … 九圓九十九錢으로八十八錢이오 先限은大阪四節六十八錢을報하야 此로三十九錢外下低價有함 …

問題는五千五百圓

부자인설립자가내이는것을 가난한학생에게분담은가혹

中等學校月謝增額問題 二

시내에잇는 각 사립고등보통학교에서 신학년부터 월사금을오할식올닌 계획이잇다함은 임의 보도하얏거니와 이에대하야 모학부형되는이는 말하되「참교육계의큰문데올시다 월사금을 올닌다함은 리유가업다고 할수도업슴니다 그러나 그것은아즉은 너무 시긔가일느지아니한가 하는생각이잇슴니다보시오현재에 중등학교 에 다니는학생중에 넉々한자가 몃명이나되며 현재 이원이라는돈을 내이기에도 얼마나고통을당하는지 그것도 담사년권만가르면 모르겟슴니다 그세에는 최어도중등학교에까지 다니는자는 각々자긔시골에서는 상당한자산가의 자질연이라하여도 파언이 아니엇소 그째에는 돈이[illegible]학생자신부터 공부할생각도 내이지못할뿐아니라 학부형도 그러케싱각하얏스닛가 자연 그째의중등당도학생이라는것은 조선전도에서 부자의자질만모힌것이라 할수가잇섯고 월사금가튼것도 일원내든것을이원으로올니거나 이원내이든것을 삼원으로 올니거나 그다지고통이 아니엇습니다 그러나 수년이래로 일반의 향학열과교육열은 전에업든새로운 현상을지어내이고 말엇습니다 학생자신이 빈주먹만가지고 뛰어나서는것은 물론이어니와 부모되는사람도 밥을굶머도 자식은가르치어야하겟다는 싱각이 나게되야 현재각학교의 학생중에는월사금은 고사하고 밥을어더먹지못하고「공떡」이나「만두」른진이돌어이는자가 반수는 될것이오 이러한형편을불고하고종지에월사금을 오할식올닌다함은 너무 성각이 여튼일인가하며 가령 설립자의 자력이라는것은한뎡이잇고 해마다 느러가는경비는 한이업슴으로 월사금을올닌다할지라도 작일귀지에 모교당의 발습과가치 사오백명수용하는학교 하나의 일년경비가삼만원이라하니 현상대로 말하면학싱오백명에게일년에밧는월사금이 원식「팔원」는데고」이면일만이천원이니 이것만 하야도경비의 삼분지일은 되지안는가만약일원식을 더밧는다 할지라도 오천오백원의 소득이 더잇슬뿐이니 결국은 설립자가 내이든 오천오백원을 학생에게 내이도록함에불과하지 아니한가 그러면아모리 설립자의 자산에한뎡이잇다할지라도 한두사람 의 자산가에게면한오천오백원은 오히려 쉬운일이라하려니와 오백명 학생에게일년에 오천오백원을 내이라함은학생계의 실정을 리해치못하는말인듯하다 나의말이 엇절인듯하나 오백명으로서는 어려운일도 한두명으로는 쉬운다함을긴히싱각할 문데요 더욱우리사회에소위 교육열과 향학열이이러난지가 몃칠이나 되는가불과주년의말이 아닌가 이째월사금을올닌다는 비로소배호랴하는자의머리에 묵어운쇠를 누름이나일반이오 중등학싱계에 큰위협인줄로 싱각하며 학교당사자나설립자되는이는 다시 싱각을돌님이엇더한가」하더라

學生의苦痛은事實

아즉견듸은업다

培材學堂 金東爀氏談

중등학교월사금문데에대하야배재학당학감김동혁(培材學堂學監金東爀)씨는말하되「그문데가이러나기는 작년십이월 하순경에 사립학교교원 일본시찰단이일본을다녀나온후간친회가치모엿슬째에 싱긴것인데 그후에아모특별한 작뎡은업고교당으에셔는 설립자씨와 상의하야본일이잇스나 그의말이이학교는 다른학교와사정이달나서미국북감리교회선교부의 경영이기째문에 학교당국자가 다른학교와가치 월사금을 놀닐지라도 관리위원회(管理委員會)에서통과되지못하면 아니되겟스닛가 우리의마음대로 태도를결뎡할수업다 하얏스며 또이학교는 말슴한바와가치 미국선교부의 경영이넉가되도록 그곳々운동하야경비를엇도록 노력중이며 일반학싱에게대하야는 엇더할가 하는데대하야도 싱각하얏지마는 년々히고학싱이 느러가는이째에다만일원이라도올리는것이 더욱고통이되지아니할가하오」하고 말하더라

四十五年間을奮鬪한 天主敎의功勞者

신부「아칠레로-벨」씨의서거 사일대구대셩당에서장식거힝

불란서사람으로 현재대구부 남산뎡이빅이십 오번디(現住大邱府南山町二百二十五番地)에거주하는「아칠레로-벨」(金保祿)씨는지난이일하오 사시십오분에세상을떠낫는데씨는 일즉이위병(胃病)으로사오년전에 자긔나라 에가서 해부하얏스나 아직까지 전쾌치는못하던중 그병으로 인하야 사망한바 씨는 지금부터 사십오년전뎡축(丁丑)년에처음으로 자긔의사랑하는 고국을떠나 그해구월팔일에 비로소 멀니잇는 산천고국인 조선황해도 빅천군(朝鮮黃海道白川郡)에이르러무한한고심을 다격그며 조선전도를두루다니며 선교에힘쓰다가 지금부터 삼십륙년전에 대구로와서전도에힘써 크게교당을건설하며 또한교까지 경영하야종교계나교육계에공로가만흔자라 칠십로령이나 항상 사업에힘을쓰며 또한 자선사업에도 크게열심하엿는대 씨의이번 일은종교방면에도 영향이 적지아닐터이라하며장의식(葬儀式)은 사일오전 팔시삼십분부터 동십일시까지 남산뎡명치뎡 이뎡목대성당(明治町二丁目大聖堂)에서 거힝하엿는데참례한사람이약삼천여명이며서교사편으로는주교(主敎)이하신부(神父)가십명이며 경성교구주교모렐(京城敎區主敎閔德孝)씨와밋시종신부(侍從神父)일명이래동하얏스며 예남산천주당구내텬주교회공동묘디(南山天主敎堂構內天主公敎會共同墓地)에장사하엿다더라

◇씨의략력

一、씨는서력일천팔백오십삼년 십월이십이일에출생하엿스며

一、씨는파리대학(巴里大學)을졸업하엿고

一、일천팔백칠십칠년에 신부(神父)에임명(任命)되여 조선에나왓더라

生前의遺恨은 오직해성학교문데

씨가조선에와서 종교사업에 종사한지 사십오년간에 수다한교회를 설립하고 교육에도열심하던바 작년에씨의동싱이 상해로셔나와 마즈막으로 본다는말에 무려본일이잇다 형님이이나라에와서 사업은 만히한줄아나 그러나형님의소원이 무엇이냐 물을째에 씨의대답이 나의소원은 아모것도업스나 다만한가지 원하는바는 내가이나라에와서 사랑하는 아들과가치싱각하는 해성학교(海成學校)는 엇지할는지 데일재산이 부족하야 걱정이라 그외에는 아모것도소원이업스나 내가죽기전에 이학교를 단々히기초(基礎)를 뎡하여야할터인데하며 걱정이넘치는 그의말은 그동싱을 감동식힌바 그동싱은그러면 나도 그학교에 대하야 힘써보겟다는말이 잇섯다더라(대구)

怪猶太人監視

모계획을음모

횡빈(橫濱)에잇는유태(猶太)사람인「단도노푸」(二?)는일본에서 방축을당한「쇠-라」라는영국인(英國人)과련락 상해에서방축을당한로국(露國)인「보다보푸」등과련락을 하야가지고 과격파선뎐을하며 중대음모를 계획한다는혐의로 감시를하든중 이든바요사이에는 문사(門司)에서 별안간에 형적을나타내어「보다보푸」를칭하야면회를하고 엇더한계획을 실힝하려는 의심이잇슴으로 동경헌병대(東京憲兵隊)본부에서는등천조장(藤川曹長)과기타군조한명이 지나간 이일에문사에와서 헌병대 및수상경찰서가 협력하야 서방의검사를 엄중히하얏다더라 (문사)

佛教總會二日

의당의연설과 곽법경씨의보고

조선불교총회의 데이일은 예뎡과가치작일오전열한시에수송동삼십본산 련합사무소안에서 림시의당 박한영(朴漢永)씨 사회로개회되여 출석의원을 점검하고의당이 불교도총회가 열린유래와 현재주위사정과 여러가지곤난한사정을드러 불교 청년들은과분의 요구를하야 부지럽시뷔인의론만 할것이아니라 우리의실력을 도라보아 상당한요구를하야 원만한성공을 하도록하라는말이잇고 그다음 전라북도위봉사주지 곽법경(威鳳寺住持郭法鏡)씨가총독부와 교섭한던말을보고하되「이불교총회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상당히 변명하야 지이니할것으로 여러말을보고하고 뒤를이어 전년도회록 랑독이잇서々회의는순조로진힝하얏더라

八十九歲의老婆火傷

륙일인천화재 룡리와내리에두번

지난륙일 오후열시삼십분 경에 인천부룡리 일빅팔십오번디 십오호리석원(仁川府龍里李錫元)의집에서 불이나서 그리옷집에 연소하랴할째에 각소방대가 현상에 달녀와 진화에 힘쓴결과 오후한시이십분에리석원의집은 전소되고 가튼번디 십사호집수동(鄭壽同)의집과동십칠호김석복(秦錫福)의집과동팔호리원동의(金龍益)의집과도합네채는반소된후 겨우진화되엿스나 불이시작된 리석원의 집에서는 팔십구세된 리씨의모친이 겁결에밧그로나오려다가 옷에불이 당기여무참히 전신에화상을 당한고로즉시 병원에보내어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원악중상임으로 성명이 위태하다하며 불난원인은 리석원의친구 박정훈(朴正勳)이란자이 그집사랑에 불을떼어후즉시 그큰커로 불길이잇서나간사이에 아궁이로부터 불이나오며 사랑바닥마루에부터 시작되엿스며 손해는지금 조사중이라는데 그날하오네시오십분경에 시내내리구십륙번디리성택목뎜(內里九六番地李成澤木店)에서또발화되여그리옷집에연소하려할제 각소방대에서 현장에달녀와 소방에노력한결과 동다섯시십분경에 진화되엿는대 원인은 안무엇에서 커녀슬짓다가 실화됨이라하며 손해는 목하조사중이라더라 (인천)

十萬圓을詐欺橫領

두명이공모하고남의집세지 동으로파라먹으랴다가발각

시내련지동(蓮池洞) 일백십일번디 추형규(秋衡圭)(二八)돈의동(敦義洞) 일백십삼번디 추준규(秋畯圭)(二七)는공모하고 십만원이나되는 재산을 횡령하려든사실이 발각되야 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 데포취조중이든바 요사이 검사국으로압송하얏다는데 그내용은 전긔두명은 교묘한 수단으로도 사긔횡령 을잘하는자로서 시내댱사동(長沙洞)사는 추혁봉(秋赫鳳) 이라는사람이 세상물정을 자세히모르고 어수룩한것을 긔회로녀이며 그사람의소유로잇는재산을 항상 엿보든바 작년봄에 추혁봉이가 돈에줄군색한빗을보고 친절한드시 자긔가돈을 돌녀주마하고 현금 이천원을 취하야줌으로 추혁봉은 아모의심도업시 돈을돌녀 주어대단히 고맙나고 사용한사실이 잇섯는대 전긔공모한두명은 그사람이 현금이 업는째를타서 별안간에자긔의 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야 결국은현금이 업는外닭에그대신에 추현봉의 소유로 고양군 숭인면(高陽郡崇仁面)에잇는토디일만사천원자리의 증명 문서와도장을 빌니라하야 아모동지도업시 자긔들이 방매하고기타강원도화천(江原道華川)에잇는토디와 밋추혁봉의 들어잇는집까지 동일한수단으로 파라서십만원에 갓가운재산을 모다횡령하려다가 지나간 십이월십사일에데포되야 그동안취조를 맛치고검사국으로압송하얏다더라

海軍工廠大火災

손해삼빅만원 원인은방금조사중

작칠일 오전한시경에 축디해군공창(築地海軍工廠)에서 돌연히 불이나서 경시텽(警視廳)을위시하야 부내각소방대가 출동하야 진화에노력하엿스나 그때맛참 서북풍이 강하게 불엇슴으로 신관검사장(新舘檢査場)[illegible]다락 삼빅평되는 공장 신관(新館)세채와 여러가지 귀한 긔계(機械)를태우고 동두시반에 겨우진화되엿는대 손해는 삼빅만원가량이오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더라

新乾原衝突詳報

독립단수효는사십명가량

밀월오일오전령시삼십분경에배일조선인의일단이함경북도신건원 수비대 (咸北新乾原守備隊)(신건원이란곳은 경원군 (慶源郡)에서오십리쯤되는곳이다)와그곳경찰관주재소를습격하야잠시동안 교전한후 한명이죽고경찰관편에서도 순사한명이 총에배를마저 중상하얏는데 그들은잠시 교전한후 긔병삼십팔년식총한개와 륙혈포한개와 아리사식수류탄(手榴彈) 네개와화약약간을버리고 간도로도망한바 수효는삼십여명쯤되더라 (칠일오전열한시 조선군사령부발표)

監獄後에兒屍

죽인것이분명

서대문(西大門)밧경성감옥(京城監獄)뒤에엇더한자가 네살가량이나되는 사나히의시톄를버린것을 작일아츰에발견하야 검시를한즉 타살의형적이 잇슴으로 시톄는룡강면(龍江面)에 인계하고 소관경찰서에서는 범인을수색중이라더라

始業日에大騷動

대판긔차회사에서

대판시서구송도뎡(大阪市西區松島町)에잇는 대판긔차회사(大阪汽車會社)는재작륙일에 신년의처음일을 시작하야 직공일천오빅명이 출근하야 일을시작하는 긔적(汽笛)과가치별안간에 큰소리를 질느며 밧갓으로직공들이 나아가서 크게소동을이르키엇는데 그원인은 해마다정초에 커음으로 일을시작하는째는 잠간모히엇다가 일은아니하고 주효료(酒肴料)를 청하는것인데 그청구를듯지 아니하고거절한 까닭에권고와 가튼소요를이르킨것이라더라 (대판)

銀行에서차진 一千八百圓을

주인은아니주고 투전미천을삼아

시내원동 일빅삼십이번디(市內苑洞)에사는 장택상(張澤相)의집에 고인(雇人)으로잇는류동혁(劉東赫)(二六)은 지나간 십이월삼십일에 주인의차저오라는 현금일천팔빅원을 조선은힝(朝鮮銀行)에서차저가지고 시내수창동팔십삼번디(市內需昌洞)에가서시내령동 일빅이십구번디(市內冷洞)에사는 리종렬(李鍾烈)등외사명과 투전을하야 모다소비하여바렷는데 필경은 사실이 발각되야 그들은 종로서에서취조를밧고 작일검사국으로 넘어갓다더라

朝鮮人이琿春襲擊

오일새벽에 배일조선인 이빅팔십명이 혼춘(琿春)근처를습격하얏더라 (상해륙일뎐보)

獨立團名簿押收

상항에서압수하엿다고

사입에상해 모려관에서조선인 장응순(張應順)외 한명이 아편을 먹는것을데포하야 일본령사관에서 취조중인데 그조선인들은 독립당의청년들 쯤취를가젓더라 (상해뎐보)

今日觀兵式

룡산에서거힝

조선에잇는 군대의관병식(觀兵式)은 해마다의전례에의하야 금팔일오전열한시경에룡산(龍山)새련병장에서 거힝할터인데 참가할부대는 경성룡산에주둔한 각부대가 전부 참가할터이며 목하대뎡군사령관(大庭軍司令官)은동경에데재중임으로 당일의관열관(觀閱官)은정법사중장(淨法寺中將)이대리로거힝하고 일반공중과 밋단데로서 관람할희망이잇는사람은 관람할 의사를신청하면 편리하게 주선하야줄터이라더라

李源喆氏米國에

수리를연구코자 작칠일남문출발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의 교사로 교편을잡고잇든 리원텰(李源喆)씨는 원리 수리학(數理學)을 다년연구하야 특별한재조를 나타내이든터인데 이번에 미국(米國)으로 류학을가려든 숙망을달하야 작칠일에 미국 미간대학을 향하고 남대문을출발하얏는대 역시 수리학을 연구할터이라더라

十八歲의竊盜犯

세번재데포되야

원적 충청북도옥천군 옥천면금구리빅오십번디 (忠北沃川郡沃川面錦口里一五〇)현주 대뎐군진잠면내동리(大田郡鎭岑面內洞里)에사는리수봉(李壽鳳)(一八)은지나간 사일밤 열시반경에 대뎐본뎡 이뎡목오십사번디(大田本町二丁目五四)에잇는 하본량뎐(河本良聽)의집에 아모도업는틈에 드러가서돈놋는궤를 뒤지어서 현금 이십오원이십삼전을 훔치어 품속에넛코 또무엇을도적질 하랴다가마츰 지나가든사람에게 발각되야 잡히엇는데 이급보를들은대뎐경찰서 시장파출소(市場派出所)에서는경관이 출장하야 곳데포하야 엄밀히조사한즉 그자는그전에도 절도범으로 두번이나처형을 바닷고 작년에 징역을맛치고 나온후로 또 갓흔짓을 하엿는데 전후삼범의 절도이라더라 (대뎐)

京都局에도火災

우편물은건지어

륙일오후여덜시에경도(京都)우편국에서 불이나서 창고를태이고 동아홉시경에진화하얏는데 우편물에는 관계가업다더라 (경도뎐보)

母子가共謀하고

오십팔원을절취

시내화원뎡 일빅십삼번디(花園町一一三)에사는 김동희(金龍姬)(四?)와그의아들김룡길(金龍吉)(二?)은얼마전부터 시내본뎡사뎡목십사번디(市內本町四丁目一三)에사는대탕뉴팔(大湯…八)의집에고인으로 잇든바지나간십이월 팔일경에 주인업는틈타서 현금오십팔원을 도적하엿는데 필경은사실이 탈로되야 방금본뎡 경찰서에서 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

鎭岑에强盜

목뎍는달치못해

지나간 이십구일새벽 세시경에 대뎐군 외남면홍도리 빅사십삼번디(大田郡外南面弘道里)사는 곡물상 김길원(金吉源)(四八)의 집에돌연히 두명의강도가 드러와서 사랑에서자는 손씨면을결박하야놋코 안으로드러가서 주인의내외를 작대기로 따려서김길원의안해의 머리에서는 유혈이랑자하게하여 놋코 재물을뻬아서가랴할때에 집안사람이 소리를질느며 야단을쳐서 강도는 목적을달치 못하고 도주하얏다는데 이급보를들은 대뎐 경찰서에서는 형사가현장에 출장하야 엄밀히조사하고 도라왓는바 아직범인은 데포치못하얏고 피해자의손해는 업다더라 (대뎐)

洑中에溺死體

타살인가자살인가

사일오전 륙시경에 상주(尙州)로가는 길거리에잇는 금천군아천면 응명동(金泉郡牙川面應鳴洞)에잇는 보에서 시톄하나가 발견되얏는데 그의주머니에는 최위동(崔渭東)이라고 쓰인 도장이들어잇슬뿐이오 나히는삼십세쯤된남자인데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알수업다더라 (금천)

避病院寄附募集

륙월까지연긔되여

시내수표뎡 사십삼번디에 사무소를두고 사무를진힝중이든 사립피병원(私立避病院) 설립에 대한긔부금모집은 루々히 보도한바와가치 오만여원에 달하얏스나 예뎡한금익의 삼분의일에 불과하고 모집긔한은 작년십이월말일로써 만긔되얏슴으로 그회에서는 당국에 긔부모집긔한을 연긔하겟다는 신청을하얏더니 금년륙월말일까지 연긔함을 허가하얏다더라

平壤婦人의覺醒

부인상회의발긔

평양에서는 근일 야소교당감리량교회(長監兩敎會)의 유지한 부인제씨의발긔로 부인상회(婦人商會)를발긔하야 지난삼십일々오후에 장대현청년전도회관(章臺峴靑年傳道會舘)에서 데일회발긔총회(第一回發起總會)를개최하야 자금은 조합금(組合金)을모아출자할일 조합원은 평양부내각유지한 부인으로할일 오는십일에 다시데이회총회를 개최할일 뎡관(定款)을 제뎡할일을의론하고폐회하얏다는데 이부인상회는 특히녀자가 중심되야 활동을마지 아니하는중이라하며 따라서 찬성자가다수하다더라 (평양)

竊盜犯檢事局에

본적전라북도전주군전주면서문외십빔번디현재주소부뎡한오영춘(全北全州郡全州面西門外吳永春)(三?)은 절도전과이범의악한으로 작년십일월이십칠일 오전열한시경에 시내봉래뎡삼뎡목이십륙번디강긔(蓬萊町岡崎)라는 일본인의집이층에 올나가 돈십원을훔친것을 위시하야 동년십이월십일까지 시내 칠팔곳으로도라다니며 잡화등속을 칠십여원어치를 절도하다가 서대문경찰서에데포되야오랜동안취조중이더니 작일 검사국으로넘기엇다더라

大邱에도火災

발화는부엌에서

대구부신뎡 일빅팔십번디 리경찬(大邱府新町一百八十番地李慶燦)의집에서지난이일 하오신이시경에 불이일어나서 부엌의 간살이에 불이붓는데 즉시진화하엿스며 원인은 부엌에서 밥을짓다가잘못하야 불이 난것이라하며 손해는 약삼빅원 가량이라더라 (대구)

水道稅를橫領

본적경긔도광주군언주면역삼리재뎡(京畿道廣州郡彦州面驛三里崔在鼎)(二?)은일뎡한주소가업시 떠도라다니다가 작년십일월이십일에 시내황금뎡이뎡목 빅사십삼번디최계순(崔啓?)의처집빌수(金必壽)에게수도파에밧쳐달나는 수도세 삼원십이전을바다서 자의로소비한것을 위시하야 동년십이월말까지 자신여처에서 수십여원을 횡령하다가 서대문경찰서에데포되여 취조중이더니 검사국으로넘기엇다더라

◆모임◆

▲종로청년회일요강화회 금팔일하오삼시에 김필수(金弼秀)씨를청하야「不違한큰救援」이란 문데로 강화

▲자교례배당강연회 자교례배당에서는 신축락성축하겸 신년강연회를연다는데 문데와연사와시일은다음과갓다더라

八日上午十一時 生命이잇느냐 張執

同日下午七時 무슨 朴鎭夏

九日下午七時 살어야그다음 姜邁

▲중앙례배당설교회 금팔일오전열시에 시내 중앙례배당에셔는박희도(朴熙道)씨를칭하야 설교(說敎)를한다는바남녀청년의합창도잇슬터이라더라

天氣豫報

晴	日出 上午七時四五分 日入 下午五時一九分
時暈	自七日午後六時 至八日午後六時
濕度 攝氏	六日最低零下二 七日正午零下四

◆온도비교◆ (攝氏)

今年昨日(正午)零下	四・二
今年昨日(正午)同	五・一
昨年最低 零下	二・三

◆휴지통

▲금년은술년이라 그러한지 신년벽두에 개에대한자미잇는 이야기 하나가잇다 ▲서대문경찰서에는 그근처 죽렴뎡에사는 엇더한 일본인에게서 떠도라다니는 개한머리를붓드러왓는데 ▲그보고서에는 칠빌오런 최할일에 거리로박황하는 개한머리를 붓드럿는데 그개는 열살쯤되야보이고 모색은재빗이오 종류는 서양개라고 ▲그다음에는 목에는비단으로 목도리를만드러 두르고 해자로 동경시하곡구근안뎡 보한사람이 던지이 개를 보호하야 주는이가잇스면 일후후히 사례하겟다고 쓰이엇다고하얏다 ▲이개가과연 그목에 쓰인것과가치 동경에서수륙 몃천리를지나 온것이라하면 이개의임자는 과연 엇더한사람이며 무슨연고로 사랑하는개를 버리고 어데로갓는가 ▲그뒤에는 반드시자미스러운 곡절이 잇스리라하는것은 신경이 예민한 경찰관의말이라 기로 소개하는것이다

京城 鍾路二丁目 동아부인상회 電話一二〇四 振替三〇一二

목도리 內衣 담요 장갑 學用品 其他雜貨具備

치렵과달력을 거저드립니다 물건사시는금액
五圓마다 掛曆大一部
四圓마다 同 中一部
三圓마다 同 小一部
二圓마다 尺曆一卷
一圓마다 面鏡一個

手足업난人에게急告
手足업난人은遲觀마시고速히 發明한 義手足을應用하야 天職을完全히하시오 見本寄別送
京城本町一丁目五一
高野義手足製作所 脫腿帶各種 義手足專門

眞正한奇藥
世上에不老草라도効驗이업스면 壹錢의價値가업스나 如此한珍藥은 萬金이尙廉하리라
京城府貫鐵洞拾番地 德和堂藥房

方氏諸位
我大同譜를刊次로設하야各地宗人에게通知하던바 期限이滿하옵기玆에更告하오니 明年二月末日까지修單及名錢을左記處所로送付하시옵
京城府寬勳洞五十七番地
溫陽方氏大同譜所

急告
小人之系派同年十八이냐撰譜하야 … 本家 … 地是實渡코자하오니切勿見欺
高陽郡纛江面 … 白

새해에는 아들아기 나호십시요!
胎養調經丸 태양조경환
잡수시구요!
태양됴경환은 경도부됴, 혈적, 팅층, 월경시요통복통, 적빅대하, 자궁병등을곳치고, 긔혈을장하게하며 성산을잘하게합니다
——약가 한제 오원——
무슨약이던지업는것업습니다
京城鍾路 和平堂藥房 電話一七九六番 振替京城一八一八番

漣川郡南面華山里前山所在松立木參萬(所有者李錫夏)貳百參拾五本을 朴敎宣李寶錫金相稷으로부터 大正拾年拾貳月拾五日買受함
大昌組 白

電話至急買入
イハシヤ 柳命烈
明治町二ノ二六(明治町公設市場二階) 電話一八四八番

京城府樂園町一丁目四十七番地
海星鐵工所 姜榮祐

京城府貫鐵洞二四
正則講習院 補缺生募集

京城府黃土峴 (電話二〇九番)
半島齒科醫院

新年의幸福으로는 저 健强을비옵니다
六味丸
服用하오신여러분의!
去年十二月中에만, 우리會社의六味丸이數千劑이나販賣되엿슴니다. 이것이勿論조흔藥임에依한것이지만는, 우리가 진히 여러분의 自保하시는생각이 느신것을感謝하는터입니다. 그만하야도 今年의健康이 豫言하야 노흐셧스니 이것으로써 새해初頭에 한마디 安全을賀禮하옵니다
아즉服用치못하신이는, 新年의첫決行으로 이제부터곳잡수어봅시요
이왕에 한제쯤잡수신이라도 强健하시는 이째에 한두제더 服用하야봅시요——六味丸을服은누구에게든지 맛는健康劑이오 ▲一劑六圓
▲달은藥도업는것업습니다
京城 朝鮮賣藥株式會社 振替二四八〇番

七日前場
四節 三十一圓四十四錢
五節 三十一圓四十錢
高値 三十一圓四十一錢
低値 三十一圓二十九錢
初付 三七、六九 六節 三七、六二

ClibPDF - www.fastio.com

무쇠탈 (八)

閔牛步

전왕비오부인、왕비한씨、시녀연연이、배종리창수(三)

연々을재운뒤에 부인은 홀노 의자에기대여 곰々생각을 한다 아々연々이몸이부럽다 질투라는속씩이는일도 아지못하고 남을뮈워하기를할가남에게원망늘받을일이잇슬가 참맘이편할것이다 그런데이내몸은 아아싱각을하지마자ー그러치만은ー소박을당한 지금와지의고싱도 압질의오는 고싱에비교하면ー이러한숨에도 세월은뎌류하야 엇꿈조커 변할려인데ー고싱각하다가 삼참홀나서 안이이것도내싱각을이지 싫상은지금에도다슬어가가는 호락한꿋이안인가하면서 몸을일어테경앞헤 서더니ー오아지도 눈매는여젼하다 언제연가 루이왕이 실업시손뀻헤감어쥐고 물찬제비리러나머리빗이아말로 물찬제비 깃갓다고하던뺨와 머리도일반이다 변하고달너진것은 루이왕의 답분이로구나ー 예々인제는 나도여긔안맛긔 쳔업는터이 안인즉이번에는루ー든이왕을 줍맘에집어논코 귀한가면을 호々々」하고 혼자우스면서한거름두거름너나와다시의자에몸을실고이런싱각저런싱각을하는중에옷은얼골도더한칭월망하는빛이깁허진다 「兒ー사랑이라고는 바월히의남편안뢰슴하나인데 그역시도 소식이도된칭하고 쳔한몸으로부터슬어올나여 총애하여주는 리창수씨지도 엇지요사이는 이몸을바라고 연々이와 수상한눈치가보인다 예々나도참 잠만치는 참엇다 지금당장에 창수놈을불너서분조를밧어야지 하고의자를밀어치며 벌덕일어나 원한에다옴으는 붉가튼눈으로 연々의두어잇는커편을 바라보니 이뻐에침발 무서운광경은 눈에보엿다 그는무엇인가 연々의 누어잇는々참々랑편갓을 말어올녀서 연々의몸을 차고자한다 원한에어두운눈이라할지라도 이것을 잘못볼리는 만무하건만은 너무도의외이며 이상한일이되여서 잠시동안은 엇지할바를 아지못하고ㅣ덤々히서잇슬뿐이엇다 이때로두고보면 십분이 지나기전에 침대는 버과가치되야 연々은그대로 오무서워리ー하고 소리를질으며 두손으로 얼골을가리웟스나 아모리 원한이 맹숭하엿슬지라도 가석이팔청춘의 꼿가튼 목숨을 눈뜨고 단々슬수야잇스랴 우리일발의급한경우가됨애 부인은 벼란간 뒤우치는싱각이나서악이니 이대로 죽일수업다 살녀노코서 문초를밧어야하지 하고 다시침대압흐로달녀갓스나 이때에는 벌서창목후의 약발뉴이엇다 옥어들어서 싸흠이터커엿던 두운은 아조혼희되도 업시들어마커 바람도돈할듬이업게되엿슨즉엇지할도리가업다 부인은등그러케는 눈알작이지도못하고한갓귀가막히여한숨만쉬는데미뼈머리맛의삼층방에서누구인지천々히올기는발자취소리가들닌다그모양은 마치잡놈을우지못하야 방안을건이는소리갓다 이것이 혹리창수나안인가 라하옥의 말에는 자기방에다 재운터이엿는데 미진은 삼층심이고보죽 삼층밧게는친실을둡뵤곳이업다을타보라 잡층이침방이고 지금 건니는것은 리창수일다 리창수는무슨까닭으로 잠을못자고밤안을 건이는가 오날은낫부터도 피곤하다고말을하엿는데 밤중에 잠니멋들수탑은업다 이와가치 의심하고ㅎ온즉 자며부인의가슴에는또 안에서 숨이막혀죽고 말것이다 부인은 그것을 깨닷는듯시에 모든원한과 모든적정을 일시에이져바리고 다만순진한 량심으로 침대에 헤닥녀가서 꿈속에 잇는 연々의 억개를잡고 「연々아 연々아 니몸으나연々은 아직까지도 밤중만 꿈속이라 눈도뜨지안코 한편팔에 우슴을띄우며 「으응창수씨요」하고 잡고대를한다 이한말에 부인은 벼락이나맛긴것가치 「악」소리를치며 뒤로물너서더니 별안간 그의얼골은 흙빗가치변하엿다 잡고대에까지 창수의일홈을 불으며 우슴을 띄울때에는 다시 의심할여디가업다 시녀의몸을 싱각지안코 지금와지의은혜도 이저바리고 나의총애하는사내를 가로차면 그리고도 편벌이업스랴고 오부인은별안간에 얼골이푸루락 붉으락하며 압니를복々갈엇다 그러한중에도 커무쉬운빈침에는 차츰々々욱어들어 연々의목숨은 이제 오분 삼분 일분도 남지못하엿다 부인은참아보지를못하야「오 한가지자미업는시긔가싱긴다 에에무정한놈 연연이와 잠마지를하고서 이케나커케나 연연의 오기를 고대하는것이다 기다리겟스면 기다려보아라 해도지어지라도기다려보아라 다시두번 연연의얼골을볼수는 업스리라 아々이것만하여도 분푸리는되다고 별안간노하엿다 별안간원망하는 부인의가슴은 과연삼서을가치어지러울것이다

主日學校施賞式

麗水西町主日學校에서는去月二十四日同校內에서施賞式을擧行하엿는데定刻이되매金執事의開會辭가有한後男女班學生中特히小兒合唱甲乙丙班學生一同의校歌와滋味잇는問答이有하야大歡迎을受하엿스며다시金執事의祈禱가有한後成績이良好한學生에게各々賞品授與를行하얏고同校主催로同二十五日聖誕祝賀의餘興으로또한素人劇을興行하얏다더라(麗水)

馬山人士新年經營

辛酉歲暮를際하야本社馬山支局主催로去月二十七日午後六時東亞館에서忘年會를開하얏는대參加한人士는各會社銀行商店等約三十人이엇는바呂柄燮氏가發起者를代表하야簡單한開會辭를述한後晩餐을共卓하얏고馬山發展과其他諸問題로懇談을交한中에馬山에朝鮮人經營의沐浴湯이無함으로此를新年부터新設하기로滿場一致可決되야馬山俱樂部長金致洙氏外에二十五人이發起人이되고또發起人中으로呂柄燮金知誥金相範五氏를執行委員으로選定하야發起人을募集하는同時에株金募集及其他事務一切를擔任케하기로決定後同八時에散會하얏더라(馬山)

天道教紀念式擧行

去月二十四日은天道教의人日紀念인故로順安天道教區室에서는盛大한紀念式을擧行하얏다더라(順安)

朝鮮人記者招待宴

慶北道參與官尹甲炳氏는去月二十八日下午六時大邱府內山陽館에朝鮮人記者를招待하야忘年懇談會를開하얏더라(大邱)

龍山教會聖誕祝賀

去十二月二十五日全北益山郡黃登面龍山耶蘇教會에서「크리스마스」祝賀式을執行하얏는대執事朴公業氏의聖經朗讀과尹敬愛女史의傳道가잇슨後에許玹氏의指揮下에一般男女小兒의趣味잇는遊戲를試하야頗히盛況을이루엇다더라(江景)

宣川크리스마쓰

宣川南北教會에서는去月二十四日午前十一時에聖誕祝賀式을擧行하고午後八時에는南教會에서祝賀餘興으로演劇이有하얏스며二十六日午後七時에는各處에留學하던學生團主催로聖經學院에서演劇을行하야祝賀의意를表하얏스며二十七日에도午後七時부터北教會에서一般信徒女子의祝賀가잇섯더라(宣川)

城津教會聖誕祝賀

十二月二十五日은耶蘇聖誕日에該當함으로城津教會에서는盛大히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當日午後二時에男女信徒가禮拜堂에모혀式을擧行할새男女學生의아름다운讚美와樂隊의奏樂이잇슨後徐有璉氏의聖誕에對한講演은一般의게큰느김을주엇고午後七時에는幼年主日學校의主催로式을擧行하얏는데禮拜堂은立錐의餘地가업섯다姜鶴牧師의司會로開式하고順序에依하야二十餘種의歌劇이有한後靑年會主催로祝賀演劇을興行하얏고二十七日夜에는普信男學生의主催로祝賀式을擧行하얏는바連日盛況을呈하얏더라(城津)

潭陽耶蘇教紀念劇

潭陽耶蘇教會에서는聖誕을紀念키爲하야去十二月二十七日에演劇을開催하얏는대順序에依하야許乘俊氏의開會辭가잇슨후곳開幕되엿는바定刻前부터雲集한觀覽者는人山人海를成하야大盛況을呈하얏다더라(潭陽)

錦山教會聖誕祝賀

錦山基督教會에서는十二月廿五日午後七時同禮拜堂에서李春元氏의司會로聖誕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特히本郡有志鄭炳鐵氏의葉子五十斤柱時計一介朴天表氏의提燈百介金聖才氏의橘七箱朴貸洙氏母親의講演床褓二件의寄贈이有하얏다그런대二十四日에는女子에二十六日에는男子에限하야入場을許하고每夜十二時外지聖誕祝賀劇을行하얏는데金顯根氏의詳細한說明으로福音을傳하얏스며更히金永仁氏의短篇과文信婦女史의獨唱이有한後閉會하얏다더라(錦山)

都査經會聖劇大會

平南都査經會主催로救世의福音을一般의게紹介키爲하야十二月廿八日부터同三十一日外지四日間平壤章臺峴禮拜堂에서聖劇大會를開催한바時間은每日下午七時이오都査經會委員長은邦緯良聖劇委員長은李補楠鄭命和三氏이더라(平壤)

老少腎氣强壯劑 滋春膏

支那各地에서回春藥으로到處妙效하야如神하니百無一失하든效力方인바光服한諸氏의許多賞讚이日增함

(王當効能) 神經衰弱 陰陽不足 手足冷 早漏 陰痿 腰痛 下腹冷 腎虛 房事不能 消化不良 婦人冷症

滋春膏 一劑廿日分拾圓 京城南大門通洞八十八番地 本舖 德盛堂 特劑參拾圓

新浦附近明太漁況

連日氣가不順하야漁況이不振하던中數日來로網船은每日十四、五馱式獲하는데當初부터의漁獲高는最高網船은六十餘馱最下二十餘馱요釣船은最高四十餘馱最下二十餘馱이라더라(新浦)

各地青年團體

天道青年會講演會

天道教青年會鎭南浦支會에서는去十二月二十八日下午七時에同會室內에서講演會를開催하얏는데會長高仲賢氏의司會下에「우리는엇더케할가」라는問題로幹務員金基栗氏를請邀하야熱辯을吐하야百餘名聽衆의게多大한覺醒을與하엿다더라(鎭南浦)

忘年會와葬魔式

安州郡基督青年會福音會主催로十二月三十一日下午八時同教會禮拜堂內에서忘年會를開하얏는바同會幹部金濟湜氏의開式辭가有한後張鳳煥金廷善金義澤諸氏가忘年所感을陳述하야數百名男女聽客에게만흔感想을與하얏스며繼하야魔鬼葬禮式을擧行하게되엿는바金化湜氏의演說金炳濟氏의魔鬼罪歷史談李寬淳氏의葬魔吊文朗讀이有한後數十名의讚頌裡에葬禮式을擧行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얏다더라(安州)

謹賀新年

靈光郡邑內 曹喜暻

靈光郡邑內 曹僎鉉

靈光郡邑內 靈光精米所

靈光郡邑內 朴正煥家小作人組合

靈光郡々西面月谷里 朴正煥

靈光郡邑內 曹喜陽

靈光郡法聖浦 法聖浦物産株式會社

米穀、雜貨、繩叺、物産委託賣買貿易 湖南物産株式會社 社長 曹秉讃 常務取締役 徐相基 取締役支配人 卞相龜 代理 裵順植
支店 群山新榮町 湖南物産株式會社群山支店 常務取締役 朴正煥

湖南線榮山浦東山農業株式會社朝鮮支店 全南出張所 金正洙

全南羅州郡羅州面南門町 金日浩

全南羅州郡鳳凰面鐵川里 徐孟洙

全南羅州郡羅新面事務所 職員一同

潭陽邑內 鞠泰一

潭陽邑內 秋城藝妓組合 藝妓一同

潭陽邑內 秋城樂工會

昌平面長蒲里 李丙星

昌平公立普通學校 職員 魏錫權 同 宋鎭庠

昌平 面長 高光彬

潭陽郡武面 面長 呂章鉉

潭陽郡武面五龍里 李文昌

靈光郡廳 李思弼

靈光郡廳 油谷保三

靈光警察署 中村政吉

靈光警察署 堀行衛

靈光郵便局 名越晴

光州地方法院靈光出張所 椎木嘉作

靈光郡邑內 宮村盛之助

靈光面 職員一同

光州郡西倉面金湖里 李會升

光州郡石谷 面長 崔達錫

光州郡石谷面望月里 文齊恩

光州郡石谷面雲井里 高光承

光州郡石谷面長雲里 金銀植

光州錦町 朴沂善

全南榮山浦 東亞日報榮山浦分局 李圭烜 金勝東

光州郡本村面龍頭里 崔喜順

光州郡本村面月谷里 盧杉永

光州郡西倉面洞荷里 張大燮

光州郡孝泉面杏巖里 高在魯

光州郡極樂面雙興里 文喜錫

光州郡西倉面龍頭里 金炳植

光州郡須奇屋町 大同商會 電話二一番 金福因 金有浩 車南衡 金慶成 文泰坤 崔當植 成殷億 韓吉祥 車鎔完

光州須奇屋町 張鳳翼商店 電話一二八

潭陽郡潭陽面潭州里 德興商會 主 林基泰

潭陽郡金城面錦月里 金興燮

光州郡林谷面沙湖里 洪㥠玉

光州郡松汀面松汀里 材木商 鄭錫五

湖南線松汀里驛前 料理屋 松月樓 主 吳鎰洙

湖南線松汀里驛前 海産物、食鹽、繩叺、布木、材木其他委託賣買 秋永明商店 電話一〇五番 電略(シユウ)又八(ネ)

羅州郡本良面事務所 金錫奎 金洛善 李洛奎 高宗杜 吳振烈

光州郡松汀面素村里三六三 朴夏駿

光州郡松汀面道湖里 朴夏瑛

光州郡松汀面素村里 朴夏湜

光州郡松汀面松汀里 松一堂藥房 主 姜大弘

光州郡牛峰 面長 范在豊

光州北門通 東西紙物文房具諸 우리商會 主務 徐範錫

靈光郡邑內 鈴木幸四郎

光州須奇屋町 綢緞布木商 沈德善

醫師千葉醫學士 光州醫院 金健植

光州郡瑞坊面杏谷里 金喜洙

光州郡本村面新昌里 韓尙雲

全羅南道 職員一同

光州郡光州面鄕社里 李起澔

光州郡孝泉面林里 鄭洛教

光州須奇屋町 湖南産業株式會社 社長 趙萬善 專務取締役 崔善鎭 支配人 崔駿基

光州須奇屋町 光全堂齒科院 朴𤨒

光州 崔善鎭自動車部 電話四四番

光州西門通 湖南洋靴店 主務 金瀚

汽車

南大門發 龍山發 永登浦發 水原發 平澤發 … 湖南線 大田發 江景發 裡里發 金堤發 井邑發 松汀里發 木浦著